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추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복지수당 지급

정읍시는 관내 13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 현장에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1080명이며, 수당은 정읍시장애인복지관으로 전달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수당을 지원해 왔다. 또 2021년에는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 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시키고, 종사자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복직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보수교육비와 국내연수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
가을정원 사진공모전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구 출포자연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 가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담은 부안 출포만 노을빛 가을정원의 가을빛과 추억'을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1인당 최대 3점까지이며, 2025년 가을철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이면 스마트폰 사진까지 출품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 제2호 지방정원인 부안 출포만 노을빛 정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가을 정원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행사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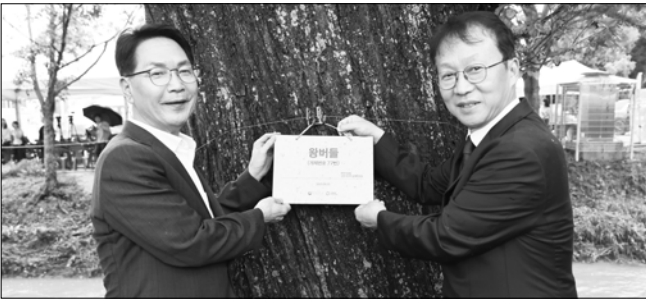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삼태천 따라 약 800m에 걸쳐 형성돼

전북 고창군과 국가유산청이 25일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의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행사를 열었다. 고창의 풍부한 자연유산 가치를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쾌거로,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은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약 800m에 걸쳐 형성된 전봉 마을숲으로,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왕버들 노거수 95그루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200여 년 동안 마을을 각종 재해로부터 지켜온 호안림·방풍림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19세기 고지도인 '전라도 무장현도'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풍수 비보림으로 전해지는 구전과 함께 민속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창농악'의 축하공연을 시작, 천연기념물 지정 경과와 향후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노거수 이름표 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주민과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고창군은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기록화사업, 학술조사 및 자료보고서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국가지정유산 승격은 이러한 고창군의 꾸준한 노력과 삼태마을숲이 지닌 역사적,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고창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증거이자, 군민 모두의 자부심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준비 박차

군, 1차 추진상황보고회 열고 현황 점검 · 보완 사항 논의

고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29일~11월2일)'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가을 대표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을 공유하며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소와 읍 단위 담당자들이 그간의 업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많은 일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올해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앳 빠지다, 모양앳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전

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창읍성 축소 정신을 되새기는 '함젠사람 선발대회'와 '성 쌓기 챌린지' △조선시대 재현 프로그램 '리턴즈 1458'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배밀리존' △MZ세대를 위한 공연과 체험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장터 등이 준비된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실행계획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을 정취 속에서 고창읍성의 역사와 전통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 청소 종합대책 가동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에 나서며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귀성객에게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선사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별 일제청소와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도시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시민불편 신고센터(☎63-539-8141~5)'와 이동 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한다. 또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수거하지만, 10월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은 휴무일로 지정된다. 시는 10월 4일 수거 이후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는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10일부터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기간 중 적체된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한다. 이어 시가지 마무리 청소를 진행해 시민들이 명절 이후 원활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와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명절 음식을 알맞게 준비하고 배출 시간을 준수해 주신다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활용

공영주차장 48면 조성

정읍시가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8면을 조성해 10월 1일부터 개방한다.

시는 오는 202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매입 전까지는 한국자본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되고, 관광객들의 쉼터 거리와 도심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상화차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시설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임시 운영 주차장이므로 차량 파손이나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차 구획선 준수, 무단투기 금지, 경찰서 건물 진입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수 시장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은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을 반영해 제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IC 회전교차로 개선

병목현상과 사고 위험으로 불편이 컸던 정읍IC 회전교차로가 정읍시의 개선사업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정읍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읍IC 회전교차로 확장공사와 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해 시민과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

그동안 정읍IC 회전교차로는 한서요 양병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차로 내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와 사고 위험이 뒤따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출부 차로로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넓혀 차량 흐름을 분산시켰다. 확장된 차로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공사에서는 중앙교통섬의 노후 경계석 교체, 과속방지턱 재포장 차선 도색 정비 등도 함께 이뤄졌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이 진행된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와 도로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보수를 이어가며 교통 수요와 도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정신건강의 날 찾아가는 마음안심카페 운영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안 운가죽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안심카페'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및 태블릿PC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마음안심서비스에서 진행되는 스트레스 측정, △스트레스 해소 풍선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마음이 파

뜻해지는 차 한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달 부안 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운가죽센터로 이전 설치된 '무인정신건강검진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종석 센터장은 "부안군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고, 필요성을 인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